

한·중 형용사 통사론적 비교 연구

- 형용사의 특징과 기능을 중심으로

단 명 결
(경희대학교)

1. 서론

본 연구는 현대 한국어와 중국어의 형용사를 대상으로, 두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는 발음부터 문자, 어휘, 문법에 이르기 까지 모든 요소를 배워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어휘의 중요성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의 몸이 뼈대와 살로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언어는 크게 문법과 어휘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어를 배울 때 기초 단계에서는 문법의 학습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으나 어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그리고 점차 문법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마찬가지로 어휘의 중요성 또한 커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휘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범주 중의 하나인 형용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어 형용사는 인구가 계통과 달리 동사와 매우 흡사한 성격을 가진다. 한국어의 형용사는 동사와 함께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기본 품사로서 어휘목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빈도수가 높은 편이

다.) 형용사는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시 대상이 실세계에 존재하지 않으면서 그 실체의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연을 확정하기가 어렵고 유의어와 다의어가 많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 동사에 뒤지지 않을 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와 통사 구조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형용사는 한국어 품사 중에서 풍부한 의미와 복잡한 형식을 모두 갖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통사적으로 한국어 형용사는 동사와 마찬가지로 문장의 서술어 자리에 위치하여 서술 기능을 하고 있다. 형태적으로도 수식 기능을 담당하는 관형형, 부사형 어미는 물론, 동사보다는 많이 제한되어 있지만 서술어 기능을 담당하는 종결어미와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다. 따라서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동사처럼 활용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동사에 비해 그 활용 양상이 다소 제한적일 뿐이다. 또한 범언어적인 형용사의 특징인 수식의 기능은 관형형 형태소의 첨가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동사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어 형용사는 형태적 구조나 통사적 기능 면에서 한국어 형용사와 비슷한 점도 있으나 차이점도 많다. 중국어 형용사는 한국어 형용사와 같이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고, 구조(結構)조사 ‘的’, ‘地’, ‘得’가 붙으면 관형어나 부사어, 보어로도 쓰일 수 있다. 또한 중국어 형용사는 형태 변화없이 목적어로도 쓰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중국어 형용사가 한국어 형용사에 비해 문장 성분으로의 쓰임이 더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어의 형용사는 시제를 나타낼 때 어미와 결합할 수 있지만 중국어는 고립어이기에 교착어인 한국어처럼 어미 개념이 없어 형용사의 시제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 외에도 양국의 형용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에게는 많은 혼동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한·중 형용사에 대한 대비 연구는 두 언어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 큰 도움이 될

1) 북경대학교 한국어학과 조교수 염선모(1991:27)는 국어대사전(이희승)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형용사 어휘목록의 비율이 명사(77.2%), 동사(14.5) 다음으로 높은 4.3%나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신순자「형용사의 형태구조적 특성」, 「인문논집」제7집,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에서 재인용).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언어 형용사의 통사적 특징을 중심으로 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2. 연구방법

본고에서는 우선 한국어와 중국어 형용사의 일반적인 차이점을 살펴본 후에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어와 중국어 형용사의 통사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된 특징에 관한 비교를 연구하도록 한다.

또 마지막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형용사의 용법을 살펴보고, 두 언어 형용사의 시제 변화, 명사 수식 등에서 구체적으로 유사한 점과 차이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두 언어를 비교하면서 제시한 예문에서 나오는 여러 부호들 중 ‘*’는 비문이고, ‘??’는 어색한 문장을 의미한다.

3. 선행연구

한국어의 형용사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들 중에서 품사의 일부분으로 형용사를 언급한 연구는 의미론적 접근, 통사론적 접근, 형태론적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형용사에 대한 통사론적 접근이 활발해 진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였다. 주요 성과는 남기심(1968), 이송녕(1969), 이상억(1970), 임홍빈(1972, 1974)등을 들 수 있다.

남기심·고영근(1987), 서정수(1996)를 비롯한 대부분의 문법서들에서 형용사를 설명해 놓은 부분은 최현배(1937/1971)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고진숙(1987)에서는 형용사에 관한 논의가 비교적 상세하고 언어 사용자의 언어 직관에 부합되는 설명을 하고 있다. 특히 동사와의 자세한 비교를 통하여 형용사의 특성을 기술해 나간 것이 주목할 만하다.

유현경(1998)에서는 2,463개의 형용사에 대하여 통사론적,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특히 개별 격틀 및 문법적인 정보와 의미를 바탕으로

로 형용사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특성을 밝히고 있다. 형용사를 크게 주어의 의미역이 경험주(experiencer)일 때는 주관 형용사로, 대상(theme)이나 처소(location)일 때는 객관 형용사 두 부류로 분류하고 있다.

김정남(1998)에서는 국어 형용사의 형태론적 특징과 의미, 화용론적 특징, 통사론적 특징 등 형용사 전반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논의는 의미론적 하위 부류와 기본 문형들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즉, 의미론적 분류에 따른 형용사 부류들이 어떠한 기본 문형의 틀에 적용되어 문장을 형성하는지 살펴보았다. ‘감각, 정서, 성질, 형상, 수량, 빈도, 기타 상태, 감평, 정평, 이평, 태도, 소유, 분포, 비교, 지정’의 의미 분류를 크게는 1가(一價)형용사 문형과 2가(二價)형용사 문형으로 나뉘어진 기본 문형들에 대응시켜 고찰하여, 의미 화용론적 특징과 통사적 특징의 상관관계를 적극적으로 고찰하였다.

많은 중국학자들이 중국어 형용사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왔지만 이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 업적으로는 朱德熙(1956)의 <現在漢語形容詞研究>를 들 수 있다. 그는 형용사의 분류·통사적 특성·중첩된 형용사의 의미적 특성에 대하여 처음으로 총괄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형용사 중첩형태의 구성 방식에 대하여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통사·의미론적 특성에 대한 지적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지금까지 형용사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지만, 이 논문 이외에 형용사의 특성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 업적은 없다. 대부분의 논문은 형용사의 부분적 특성에 대하여 단편적으로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형용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현황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관찰하기로 한다.

첫째, 형용사를 중심으로 한 품사 분류에 대한 연구 업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을 들 수 있다.

呂叔湘 <關於漢語詞類的一些原則性問題(上·下)> 《中國語文》(1954年9·10月号): 이 논문은 품사 구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중국어에서 품사 구분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그 품사 구분의 기준은 무엇인가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품사 구분에 관한 1950년대의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를 포함한 제반 품사 구분

문제에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는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 문장성분에 의거한 구분·‘鑑定字’에 의거한 구분·중첩형태에 의거한 구분을 소개하였고, 품사 분류와 의미의 관계·‘一詞多類’문제 등을 언급하고 있다.

둘째, 형용사의 통사적 특성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들이 있다.

楊寬仁 <論非定形容詞>《語言研究》(1985年, 第二期): 《現代漢語詞典》에 실려 있는 형용사를 대상으로 관형어로 쓰일 수 없는 ‘비관형어형용사’를 연구한 논문이다. 그는 《現代漢語詞典》에 실린 어휘 가운데 형용사를 먼저 분류한 뒤, 이것을 다시 문장성분별로 보통형용사3021개 비관형어형용사233개 관형어로 쓰일 수 있지만 술어로 쓰일 수 없는 관형어비술어형용사624개를 분류하였다.

셋째, 중국어 어휘의 유사어들간의 차이점을 기술한 ‘同義詞典’을 들 수 있다. 이 글에 서 참고한 사전은 다음과 같다.

崔奉春의 《朝漢語語彙對比》(延邊大學出版社, 1988)등에서 출판된 일부 단행본에서 품사별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휘를 비교하고 있다. 이 단행본은 ‘명사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 동사 형용사’의 다섯 가지 품사에 해당하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휘들을 비교하고 있다. 형용사는 다시 ‘상용형용사·형용사의 조어법·형용사의 의미 분포·형용사의 분류·형용사의 특성·한국어와 중국어의 의성어·한국어와 중국어의 온도감각어의 의미 분석’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넷째, 형용사의 중첩형태에 대한 연구 논문을 들 수 있다.

湯廷池 <國語形容詞的重疊規律>《漢語語法句法論集》(學生書局) 1982: 이 논문은 모든 언어 현상에는 일정한 법칙이 존재한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중첩 가능한 형용사의 규칙성을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겹으로 명백히 드러나서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형용사일수록 AABB식 중첩이 용이하다는 의미 특성을 중첩 가능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앞에서 형용사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형용사에 대한 연구는 동사에 대한 꾸준하고도 심도 있는 연구에 비해 아직까지 질적으

로나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형용사 유형에 대한 접근은 거의가 의미적인 자질로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의미적 자질에 의한 유형 분류는 특징적인 의미 자질을 가진 형용사 부류에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용사 전체의 상대적인 관계속에서의 유형 분류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4. 한·중 형용사 통사론적 비교

4.1 한국어 형용사의 특징

본 장에서는 형용사의 통사적인 면에서 형용사의 특징을 논의하기로 한다. 여기에서의 형용사의 특징은 어미와의 제약, 시상(時相) 표지와와의 관계, 인칭 제약, 부사와와의 관계, 보조용언과의 관계 등의 순서로 논의 한다.

4.1.1 어미와의 제약

형용사의 어미 활용은 동사보다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현재시제 평서형 종결어미 ‘-는다/-ㄴ다’, 명령형, 청유형 종결어미와 접속어미와의 공기 관계에서 그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① 평서형 종결어미 ‘-는다/-ㄴ다’와의 제약

형용사가 동사와 대조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현재시제 평서형 종결어미 ‘-는다/-ㄴ다’와 공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음의 예들에서 이러한 공기 제한을 살펴볼 수 있으며, 따라서 현재형 관형사형 어미가 형용사는 ‘-은/-ㄴ’으로, 동사는 ‘-는’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 | | |
|--------------------------|--------------|
| (1) ㄱ. 나는 배가 고프(*-ㄴ다) | 고프(*-는, -ㄴ)배 |
| ㄴ. 밤에 내리는 눈은 더욱 희(*-ㄴ다) | 희(*-는, -ㄴ)눈 |
| ㄷ. 빵집에 가면 맛있는 빵이 많(*-는다) | 많(*-는, -은)빵 |
| ㄹ. 수진이의 눈은 예쁘(*-ㄴ다) | 예쁘(*-는, -ㄴ)눈 |

김차균(1980)은 ‘-는다’를 ‘-느+은+다’의 세 형태소로 분석하고 ‘-느’의 문법적 의미를 [-상태성]으로 보고 있는데, 본고에서도 형용사에 내재된 [+상태성]과 ‘-느’에 내재된 [-상태성(동태성)]과의 충돌로 인하여 형용사가 ‘-는다’와 공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② 명령형, 청유형 종결어미와의 제약

아래의 각 예들에서 형용사는 ‘명령형’(2~5 ㄱ), ‘청유형’(2~5 ㄴ) 표현 속에서는 나타날 수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본질상 명령문이나 청유문은 ‘행동주(agent)’를 주어로 요구하는 표현인데, 행동주를 주어로 취할 수 없는 형용사문의 특징과 충돌을 일으켜 비문이 되고 있다.

- (2) ㄱ. *석원아, 배가 고파라.
 ㄴ. *석원아, 배가 고파자.
- (3) ㄱ. *주원아, 얼굴이 희어라.
 ㄴ. *주원아, 얼굴이 희자.
- (4) ㄱ. *수진아, 예빠라.
 ㄴ. *수진아, 예쁘자.
- (5) ㄱ. 현주야, 방안에 있어라.
 ㄴ. 현주야, 방안에 있자.

‘행동주’란 ‘자신의 의도로 自力을 사용해서 자신이나 다른 개체의 속성, 위치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有情個體’로 규정되므로(Lyons, 1977:483), 위의 같이 형용사가 ‘행동주’ 문맥에 나타날 수 없음을 형용사의 특징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나 (5)에서와 같이 ‘있다’는 정문을 만들고 있어서 예외가 되고 있다²⁾.

2) 존재를 나타내는 ‘있다, 없다, 계시다’는 동사와 형용사의 특성을 동사에 지녔기 때문에 많은 논란을 일으켜 왔다. 본고에서 이들의 형용사성과 ‘존재’를 나타낸다는 특성을 우선하여 형용사의 하위 범주에 소속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의 동사성이 명령법, 청유법, 의도 표시 형태 등과 공기관계를 이루어(있어라, 있자, 있겠다/있으려고) 형용사의 특성에 어긋나는 예외 현상을 위와 같이 보여주고 있다.

③ 접속어미의 제약

접속어미는 서술 기능과 함께 선행문을 접속시키는 구실을 하는 어미이며, 이것들은 각각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접속어미는 문법적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접속어미와 각 부류의 형용사들이 어떠한 제약을 보이는지 살펴본다.

접속어미는 대개 대등형과 종속형으로 나뉘는데, 대등형은 어떤 문장과도 통사 제약이 없으므로 종속형 접속어미만을 대상으로 논의한다.

아래의 <표1>에서는 의미에 따라 세분된 접속어미의 항목과 형용사 각 부류의 대표적 단어의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들 각 항목끼리의 공기 관계를 살펴보고 각 항목 간 공기 관계에 제약을 보이지 않으면 ‘+’로 표시하고 제약을 보여 잘 어울리지 못하면 ‘-’로 표시한다.

<표1> 한국어 형용사 각 부류와 접속어미의 공기 관계

		감각					감정				평가	존재		지시	
		푸르다	맑다	조용하다	고소하다	짜다	기쁘다	놀랍다	무섭다	그렵다	예쁘다	멋있다	있다	빠르다	그려하다
의도	-(으)(고)	-	-	-	-	-	-	-	-	-	-	-	+	-	-
목적	-(으)려	-	-	-	-	-	-	-	-	-	-	-	+	-	-
이유	-아/어(서)	+	+	+	+	+	+	+	+	+	+	+	+	+	+
동시적 이유	-느라고	-	-	-	-	-	-	-	-	-	-	-	+	-	-
동시성	-(으)면서	+	+	+	+	+	+	+	+	+	+	+	+	+	+
계기성	-고(서) -자마자	+	+	+	+	+	+	+	+	+	+	+	+	+	+
양보	-아/어도	+	+	+	+	+	+	+	+	+	+	+	+	+	+
조건	-면, 거든	+	+	+	+	+	+	+	+	+	+	+	+	+	+
도급	-게, 도록	+	+	+	+	+	+	+	+	+	+	+	+	+	+
수단	-고(서)	+	+	+	+	+	+	+	+	+	+	+	+	+	+
중단	-다가	+	+	+	+	+	+	+	+	+	+	+	+	+	+
유사	-듯	+	+	+	+	+	+	+	+	+	+	+	+	+	+
익심	-(으)ㄹ수록	+	+	+	+	+	+	+	+	+	+	+	+	+	+
당위	-아/어야	+	+	+	+	+	+	+	+	+	+	+	+	+	+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의도형 접속어미 ‘-(으)려(고), -고자’와 목적형 접속어미 ‘-(으)려’ 등은 형용사와 공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의도형 접속어미 ‘-(으)려(고), -고자’와 목적형 접속어미 ‘-(으)려’가 명령문이나 청유문에서와 같이 ‘행동주’를 주어로 요구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도형, 목적형 접속어미가 쓰인 문장은 행동주를 주어로 취할 수 없는 형용사문의 특성과 충돌을 일으켜 위의 표가 보여주듯이 공기 관계에서 제약이 나타나고 있다.

접속어미 ‘-느라고’도 역시 형용사와 공기 관계에서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접속어미 ‘-느라고’가 ‘화자가 생각할 때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나 상태의 원인’을 뜻하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일어남’은 시간적으로 [+동태성]의 의미 자질을 갖는 것이 되므로 형용사에 내재된 [+상태성]과 충돌을 보아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의도형과 목적형, 동시적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어미 문장에서 형용사 ‘있다’만 제약 없이 공기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6) ㄱ. 현주가 방안에 있으려고/있고자 했다.

ㄴ. 수진이는 수원에 있으라 참석을 못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있다’에 내포되어 있는 동사적 의미 자질 때문으로 보인다.

4.1.2 시상(時相) 표지와 의 제약

행동을 전제로 하는 표지, 다시 말해 진행표지 ‘-고 있-’, 결과상태의 지속 표지 ‘-고/-어 있-’, 시동(始動) 표지 ‘-기 시작하-’ 등은 [+동태성]의 의미자질로 인하여 형용사와 공기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형용사가 동사와 구별되는 차이점으로는 과거 시제의 관계관형화 구성이 있다.

① 진행 표지와 의 관계

아래의 예들은 형용사가 진행을 나타내는 ‘-고 있-’과 공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7) ㄱ. *배고 고프고 있다.

ㄴ. *얼굴이 희고 있다.

ㄷ. *빵이 많고 있다.

ㄹ. *눈이 예쁘고 있다.

이들 형용사가 진행의 ‘-고 있-’과 공기하지 못하는 이유도 쉽게 설명된다. 이들에 내재된 [+상대성]과 진행(동태적 상황의 지속)의 의미에 담긴 [+동태성]이 서로 모순을 빚기 때문이다.

② 결과상태의 지속 표지와와의 관계

형용사들은 결과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고/어 있-’과도 공기하지 않는다.

(8) ㄱ. *나는 배가 고파 있다.

ㄴ. *주원이는 얼굴이 희어 있다.

ㄷ. *빵이 많이 있다.

ㄹ. *수진이는 예뻐 있다.

이러한 공기 제한은 내적 시간 구조를 갖지 않는 형용사의 특성으로부터 설명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지시하는 상황은 출발점이나 완성점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 그러한 공기 제한의 원인이 된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완료되고 그 이후 완료에서 비롯된(결과된)상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상황이 맺어지는(완료되는) 시점, 곧 완성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완료문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성점을 갖지 못하는 형용사는 결과상태의 지속 표지와 공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③ 시동(始動) 표지와와의 관계

형용사들은 시동(始動)을 나타내는 ‘-기 시작하-’와도 공시하지 않는다. 다음 예를 검토 보자.

(9) ㄱ. 갑자기 손가락이 아프기 시작했다.

ㄴ. 나는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

ㄷ. ??석원이는 즐겁기 시작했다.

ㄹ. ??현주는 그림기 시작했다.

ㅁ. *수진이는 예쁘기 시작했다.

ㅂ. *통나무 집이 견고하기 시작했다.

ㅅ. *방안에 사람이 많이 있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형용사들은 [+동태성]의 의미를 지니는 시동 표지와와의 공기 관계에서 위와 같이 다양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9ㄱ, 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주로 ‘감각’을 나타내는 일부 형용사는 ‘-기 시작하-’와 공기가 가능하며, (9ㄷ, ㄹ)에서처럼 ‘주관적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공기 관계가 어색하게 나타나며, ‘객관적 상태나 속성, 존재’ 등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쓰인 (9ㅁ, ㅂ, ㅅ)은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만다.

이는 내적 시간 구조를 갖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의 출발점을 생각할 수 없는 형용사의 특성과 시동의 의미가 상충되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형용사들은 이처럼 형용사의 특성에 위배되는 시동 표지와 공기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문은 보여주고 있다. (9ㄱ, ㄴ)의 예외는 ‘감각적 상태의 정도 변화’가 ‘지속적인 동태적 상황’으로 우리에게 인식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④ 과거시제 관계관형화의 구성

정문수(1984,1986)에서 형용사가 동사와 구별되는 차이점으로 과거시제의 관계 관형화 구성을 꼽고 있다. 이 때 형용사는 ‘V-(었)-던’의 형식으로, 동사는 ‘V-은’의 형식으로 표현된다면서 같은 예를 들고 있다.

(10) ㄱ. [[은미(가) 예쁘-었(다)]s 은미]NP

ㄴ. 예쁜 은미

ㄷ. 예쁘(었)던 은미

(11) ㄱ. [[아이(가) 죽-었(다)]s 아이]NP

ㄴ. 죽은 아이

ㄷ. *죽(었)던 아이

그러나 형용사만 ‘V-었-던’의 형식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12) ㄱ. [[석원(이)가 공을 차-었(다)]s 석원]NP

ㄴ. 공을 찬 석원

ㄷ. 공을 차(었)던 석원

(13) ㄱ. [[현주(가) 밥을 먹-었(다)]s 현주]N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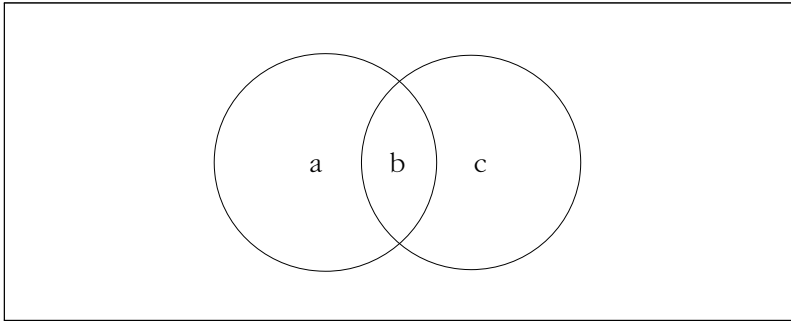
ㄴ. 밥을 먹은 현주

ㄷ. 밥을 먹(었)던 현주

위의 (12)와 (13)의 예가 보여 주듯이 동사에서도 형용사와 같은 방식의 과거 시제 관계관형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油谷幸利(1978)와 정문수(1982)의 [-상태, -순간]의 상적 특성을 지닌 ‘과거성’ 동사(뜨다. 가지, 놀다……)에서 나타나며, ‘과정성’ 동사의 과거시제 관계관형화 구성은 [+상태, -순간]의 상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형용사와 같은 형식으로 과거시제 관계관형화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에서 정문수(1982)의 논의와 어긋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의 원인은 ‘었’에 대한 의미 기능을 살핌으로써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었’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지량(1982)에서 그 의미를 다음 <표2>로 나타내고 있다.

<표2> 시상에 따른 ‘었’의 의미



- a는 과거만을 보이고 완결을 보이지 않는 경우
- b는 완결만을 보이고 과거를 보이지 않는 경우
- c는 과거완결만을 보이는 경우

(10)과 같은 문장에서 [+상태성]의 형용사가 나타내는 상황은, 그 상황의 한계점을 생각할 수 없고 항시적으로 지속이 되는 속성을 지시하기 때문에, 이때의 ‘었’은 ‘완결’을 보이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용사와 함께 쓰이는 ‘-었-’

은 늘 ‘과거’만을 나타내게 되어, <표2>의 a에 해당한다. 그리고 관계화 어미 인 ‘-은’을 포함한 용언의 속성에 따라 ‘상태지속’의 의미만을 갖게 된다.

(10ㄴ)의 ‘예쁜 은미’는 ‘은미는 예쁘다’에서 유도된 구문이다. 그러므로 ‘은미는 예뻤다’라는 과거시제 구문에서 유도된 구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쁜 은미’에 과거표지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표지는 ‘-더-’가 된다. 이렇게 하여 (10ㄷ)은 ‘과거에 지속되던 상황’을 나타내게 된다.

(11)의 ‘죽다’와 같은 ‘순간성’ 동사는 ‘V-(있)-던’ 형태를 취할 수 없다. 왜냐하면 (11ㄱ)에서와 같이 ‘순간성’ 동사의 과거형에 쓰이는 ‘있’은 [+순간]의 특성에 의해 ‘완결’의 의미로 쓰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순간성’ 동사와 같이 쓰이는 ‘있’은 위의 <표2>에서 b에 해당하여 ‘완결’의 의미만을 가진다.

4.1.3 인칭 제약

형용사는 논항을 하나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논항을 둘 가지는 경우도 있어 형용사문은 대체로 겹주어구문을 구성하게 된다. 형용사문에 나타내는 이런 특이한 통사적, 의미적 현상은 오랫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고, 그 통사구조를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져 왔다.

여기에서는 겹주어구문으로 나타나는 형용사문의 통사현상을 논항구조³⁾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주어의 성격을 달리한다는 것은 술어가 선택하는 명사의 선택 제한과 관련되는 것으로, 각 유형별 주어 성격의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의미유형에 따른 구문의 차이를 나타내 보이하고자 한다.

주어의 인칭 제약 현상은 그 문장을 구성하는 술어의 특성과 관련하여 일

3) 김세중(1994:85)에서 논항구조는 논항의 수와 논항간의 상대적인 우월성에 대한 정보가 남겨 있고, 논항간의 상대적인 우월성은 어순과 통사구조에 반영된다고 설명하고 이 논항구조는 술어의 통사적인 정보를 나타내 주는 구조이며 술어의 수와 이들 사이의 상대적 순서를 나타낸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예를 보이고 있다.

자다 <논항1>
 먹다 <논항1 <논항2>>
 주다 <논항1 <논항2 <논항3>>>

어난다. 즉 술어가 지니는 명제내용의 성격에 따라 주어가 결정 된다. 여기에 서는 형용사 구문만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⁴⁾

① 경험주 구문

심리형용사구문의 특성 중의 하나는 경험주⁵⁾를 주어로 요구한다는 점이다. 심리형용사 구문의 평서문에서 주어가 1인칭 일 때만 문법적으로 나타난다.

(14) ㄱ. 나는 춥다.

ㄴ. *너는 춥다.

ㄷ. *그 남자는 춥다.

위의 예문에서와 같이 ‘춥다’ 같은 부류의 술어가 쓰인 평서문은 주체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이 그 내용이 되며, 그 주체의 감정, 감각 등의 내적인 심리상태를 나타내게 된다.

그러므로 주어가 1인칭인 경우는 화자는 곧 주어이므로 문법적인 문장이 가능하지만, 주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화자가 되어 주체만이 알고 있는 어떤 사실에 대하여 단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4ㄴ, ㄷ)은 비문이 된다.

(15) ㄱ. *나는 슬프니?

ㄴ. 너는 슬프니?

ㄷ. *그 남자는 슬프니?

예문과 같이 의문문으로 실현될 때 (15ㄱ) 과 (15ㄷ)은 명제내용을 주체(화자)만이 아는 사실이므로 청자에게 화자 자신이나 제삼자의 심리상태를 묻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비문이 된다.

② 대상주 구문

속성형용사 구문의 주어는 심리형용사 구문의 경험주와는 다른 성격의 주어를 가진다. 화자가 대상(주어)에게, 대상이 가진 속성의 가치를 평가, 부여

4) 이러한 연구로는 김영희(1981), 서정수(1986), 신현숙(1990), 정문수(1984) 등이 있으며, 이들에서 분류 논의되고 있는 동사의 자질 및 유형들은 의미적 또는 상적 자질에 관한 것이다.

5) Dowty(1991:609)에 따르면 경험주란 의지와 상황을 야기시키는 성질이 없이 지각만을 지니는 존재를 뜻한다.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속성형용사 구문의 평서문에서 주어
가 2, 3인칭일 때만 문법적으로 나타난다.

- (16) ㄱ. ?나는 멋있다.
 ㄴ. 너는 멋있다.
 ㄷ. 그 남자는 멋있다.

(16 ㄱ)의 ‘A가 멋있다’라는 문장에서 A는 ‘대상주’로 ‘멋있다’는 속성을 지니며, ‘멋있다’는 속성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화자가 된다. 그러므로 자신이 멋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색한 느낌을 준다.

- (17) ㄱ. 나 멋있니?
 ㄴ. *너 멋있니?
 ㄷ. 그 남자 멋있니?

예문과 같이 의문문으로 실현될 때, (17 ㄱ, ㄷ)은 청자의 나에 대한 그리고 제삼자에 대한 가치판단을 묻는 것이므로 문법적인 문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17 ㄴ)은 청자에게 청자 자신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리라는 것이 되어 일반적으로 어색한 느낌을 준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경험주=화자’가 되지만 ‘대상주≠화자’이어야 하는 제약이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심리형용사 구문의 평서문은 2, 3인칭에 대하여 제약을 보이고, 속성형용사 구문은 평서문에서 1인칭 제약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4.1.4 부사와의 공기 제약

부사는 용언 수식이 기본 기능이다. 그러나 동사와 형용사가 똑같이 모든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사의 종류는 대개 상태부사(狀態副詞), 시간부사(時間副詞), 서법부사(敍法副詞), 정도부사(程度副詞)로 나뉜다.

① 성상부사와의 제약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성상부사와는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짓는 통사적 차이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

다. 그 이유는 정도 부사는 대부분 순수 부사이지만, 성상부사는 대개 형용사에서 파생과 굴절의 부사화 변화를 통하여 전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상부사는 형용사와 의미가 상충되어 <표3>에서와 같이 공기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러 종류의 형용사 중에서 ‘아프다’만 유일하게 성상부사와 별 제약 없이 어울리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감각형용사 중에서 ‘통각(痛覺)’을 나타내는 다른 감각어들과도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 한국어 형용사와 성상부사의 공기 관계

	감각						감정				평가		존재		지시
	푸르다	맑다	조용하다	고소하다	짜다	아프다	기쁘다	놀랍다	무섭다	그림다	예쁘다	멋있다	있다	빠르다	
간신히	-	-	-	-	-	-	-	-	-	-	-	-	-	-	-
가까스로	-	-	-	-	-	-	-	-	-	-	-	-	-	-	-
급히	-	-	-	-	-	+	-	-	-	-	-	-	-	-	-
빨리	-	-	-	-	-	+	-	-	-	-	-	-	-	-	-
어서	-	-	-	-	-	-	-	-	-	-	-	-	-	-	-
얼른	-	-	-	-	-	-	-	-	-	-	-	-	-	-	-
서서히	-	-	-	-	-	+	-	-	-	-	-	-	-	-	-
천천히	-	-	-	-	-	+	-	-	-	-	-	-	-	-	-
저절로	+	+	+	-	-	+	-	-	-	-	-	-	-	-	-
스스로	-	-	-	-	-	+	-	-	-	-	-	-	-	-	-
넉넉히	-	-	-	-	-	-	-	-	-	-	-	-	-	-	-
충분히	+	+	+	+	+	+	+	+	+	+	+	+	+	+	+
막연히	-	-	-	-	-	-	-	-	-	-	-	-	-	-	-
어렵듯이	-	-	-	-	-	-	-	-	-	-	-	-	-	-	-
슬며서	-	-	-	-	-	-	-	-	+	-	-	-	-	-	-
열심히	-	-	-	-	-	-	-	-	-	-	-	-	-	-	-
성실히	-	-	-	-	-	-	-	-	-	-	-	-	-	-	-
땃땃이	-	-	-	-	-	-	-	-	-	-	-	-	-	-	-
꾸준히	+	+	+	+	+	+	-	-	-	-	-	-	-	+	+
곳곳이	-	-	-	-	-	-	-	-	-	-	-	-	-	-	-

잘	-	-	-	-	-	-	-	-	-	-	-	-	-	-	-
즐거이	-	-	-	-	-	-	-	-	-	-	-	-	-	-	-
막	-	-	-	-	-	-	+	+	+	-	-	-	-	-	+
함부로	-	-	-	-	-	-	-	-	-	-	-	-	-	-	-

② 시간부사와의 제약

시간부사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로 시제(時制)나 상(相)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시간부사는 시제부사(時制副詞)와 상부사(相副詞)로 나뉘는데, 먼저 시제부사와 형용사의 공기 관계를 살펴보자.

(18) ㄱ. {접때/당시} 고향이 그리웠을 것이다.

ㄴ. {내일/장차/훗날} 고향이 그리울 것이다.

위와 같이 시제 부사는 형용사와 별 제약 없이 공기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상부사와의 제약을 논의해보자. 상부사를 이주행(1992:143)에 따라 <표4>와 같이 나누고 그 순서대로 형용사와의 공기 관계를 살펴보면 대개의 상부사는 형용사의 종류에 상관없이 공기 관계의 제약에 어떤 특징적인 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4> 한국어 형용사와 상부사와의 공기 관계

		감각					감정			평가		존재		지시	
		푸르다	맑다	조용하다	고소하다	짜다	아프다	기쁘다	놀랍다	무섭다	그렵다	예쁘다	멋있다		있다
완료	이미	+	+	+	+	+	+	+	+	+	-	-	-	+	+
	벌써	+	+	+	+	+	+	+	+	+	-	-	-	-	+
진행	한창	+	+	+	+	+	+	+	+	+	+	+	-	+	+
	아직	+	+	+	+	+	+	+	+	+	+	+	+	+	+
순서	먼저	+	+	+	+	+	+	+	+	+	+	+	+	+	+
	미리	-	-	-	-	-	+	-	-	-	-	-	-	-	-
	더불어	-	-	-	+	+	+	+	+	+	+	+	+	+	+
	때마침	-	-	-	+	+	+	+	+	+	-	-	-	+	+
	마침내	+	+	+	+	+	+	+	+	+	-	-	-	+	+

	이윽고	-	-	-	-	-	-	-	-	-	-	-	-	-	+	+
순간	갑자기	+	+	+	+	+	+	+	+	+	+	-	-	-	+	+
	문득	-	-	-	-	-	-	-	-	-	-	-	-	-	-	-
지속	종일	+	+	+	+	+	+	+	+	+	+	+	+	+	+	+
	여태	+	+	+	+	+	+	+	+	+	+	+	+	+	+	+
	항상	+	+	+	+	+	+	+	+	+	+	+	+	+	+	+
반복	다시	+	+	+	+	+	+	+	+	+	+	+	+	+	+	+
	날마다	+	+	+	+	+	+	+	+	+	+	+	+	+	+	+
	번번이	+	+	+	+	+	+	+	+	+	+	+	+	+	+	+

그러나 형용사는 시상(時相)을 나타내는 결과상태의 지속표지(완료하고 그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 ‘-고 있- 등과는 어울림이 불가하나 완료, 지속, 진행 등의 상을 나타내는 부사와는 무리 없는 어울림을 보여주는 점이 특이하다.

(19) 완료의 부사

- ㄱ. 하늘이 벌써 푸르다.
- ㄴ. *하늘이 벌써 푸르(고/러) 있다.

(20) 지속의 부사

- ㄱ. 영화는 여태 똥똥하다.
- ㄴ. *영화는 여태 똥똥하(고/러) 있다.

(21) 진행의 부사

- ㄱ. 어제 구운 빵인데도 아직 부드럽다.
- ㄴ. *어제 구운 빵인데도 아직 부드럽고 있다.

시상 표지 중에서 진행이나 결과상태의 지속 표지는 행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동태성]의 의미 자질을 갖게 되어 형용사문에서 쓰일 수 없다. 그러나 완료, 지속, 진행을 나타내는 상부사는 예문과 같이 형용사문에서 별 제약 없이 쓰이고 있다.

③ 서법부사와의 제약

서법부사(敍法副詞)는 문장 명제에 대한 화자의 정신적 태도의 정도나 강도적인면, 다시 말해서 개연성(蓋然性), 가설(假說), 양보(讓步), 기원(祈

願), 부정(否定), 필연(必然), 당연성(當然性) 등을 다양하게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서법부사는 서법적 의미 내용이 반영된 서술적인 표현 방식과 호응하는 통사적 선택 제약이 따른다. 서법부사와 형용사의 공기 관계에서도 형용사와 서법 부사와의 관계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문장의 구성이 통사적으로 서법부사와 호응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다음의 예를 보기로 한다.

(22) ㄱ. (아마/가량/물론) 바쁠 것이다.

ㄴ. *(아마/결코/조금도) 맑아라.

위의 예에서와 같이 ‘아마, 가량, 물론’은 ‘-ㄴ 것이다’와, ‘결코, 조금도’는 ‘부정 서술어’와 호응 관계를 이루어야 적절한 문장을 이룬다. 이와 같이 서법 부사가 요구하는 문장의 통사론적 구성과 호응 관계를 이루는 문장에서라면, <표5>에서와 같이 형용사와 서법부사의 공기 관계는 별 제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5> 한국어 형용사와 서법부사의 공기 관계

		감각					감정				평가		존재		지시	
		푸르다	맑다	조용하다	고소하다	짜다	아프다	기쁘다	놀랍다	무섭다	그렵다	예쁘다	멋있다	있다	빠르다	그리하다
蓋然性	아마	+	+	+	+	+	+	+	+	+	+	+	+	+	+	+
假說	가량	+	+	+	+	+	+	+	+	+	+	+	+	+	+	+
讓步	비록	+	+	+	+	+	+	+	+	+	+	+	+	+	+	+
祈願	부디	+	+	+	+	+	-	-	-	-	+	+	+	+	+	+
否定	결코	+	+	+	+	+	+	+	+	+	+	+	+	+	+	+
必然	기어이, 꼭	+	+	+	+	+	+	+	+	+	+	+	+	+	+	+
當然性	마땅히	+	+	+	+	+	+	+	+	+	+	+	+	+	+	+
	물론	+	+	+	+	+	+	+	+	+	+	+	+	+	+	+
	확실히	+	+	+	+	+	+	+	+	+	+	+	+	+	+	+
	과연	+	+	+	+	+	+	+	+	+	+	+	+	+	+	+

4.1.5 보조용언과의 공기 제약

보조용언은 자립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구문 상에서 본형용사나 본동사 바로 뒤에 놓여 그들과 상호 의존 관계 또는 공존 관계를 맺으면서 시제, 상, 서법 등을 나타낸다. 이러한 보조용언과 각 부류의 형용사들이 어떠한 제약을 보이는지 살펴보자.

아래의 <표6>에서는 의미에 따라 세분된 보조용언의 항목과 형용사 각 부류의 대표적 단어의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표 6> 한국어 형용사와 보조용언의 공기 제약

		감각					감정				평가	존재		지시		
		푸르다	맑다	조용하다	고소하다	짜다	아프다	기쁘다	놀랍다	무섭다	그렵다	예쁘다	멋있다	있다	빠르다	그리하다
否定	(-지)아니다	+	+	+	+	+	+	+	+	+	+	+	+	+	+	+
不能	(-지)못하다	+	+	+	-	-	+	+	-	-	-	-	-	-	+	-
是認	(-기는)하다	+	+	+	+	+	+	+	+	+	+	+	+	+	+	+
希望	(-고)싶다	-	-	-	-	-	+	+	+	+	-	+	+	+	+	-
狀態	(-아/어)있다	-	-	-	-	-	+	-	-	-	-	-	-	-	-	-
推測	(-ㄴ가, -는가, -ㄴ나)보다	+	+	+	+	+	+	+	+	+	+	+	+	+	+	+
當為	(-아/어야)되다	+	+	+	+	+	+	+	+	+	+	+	+	+	+	+
意圖	(-려/고자)하다	-	-	+	-	-	+	-	-	-	-	+	+	+	-	-
使動	(-게)하다	+	+	+	+	+	+	+	+	+	+	+	+	+	+	+
被動	(-게)되다	+	+	+	+	+	+	+	+	+	+	+	+	+	+	+
進行	(-아/어)가다	-	-	-	-	-	+	-	-	-	-	-	-	-	+	-
終結	(-해/해내)버리다	-	-	-	-	+	+	-	-	-	-	-	-	-	-	-
奉仕	(-아/어)주다	-	-	-	-	-	-	-	-	-	-	-	-	+	-	-
施行	(-아/어)보다	-	-	+	-	-	+	-	-	-	-	+	+	+	+	-
強勢	(-아/어)대다	-	-	-	-	-	+	-	-	-	-	-	-	-	-	-
習慣	(-아/어)버릇하다	-	-	+	-	-	+	-	-	-	-	-	-	+	+	-
保有	(-아/어)놓다	-	-	-	-	-	-	-	-	-	-	-	-	-	-	-
禁止	(-지)마라	-	-	+	-	-	+	-	-	-	-	-	-	+	-	-
成就	(-고야)말다	-	-	-	-	-	+	-	-	-	-	-	-	-	+	-

4.2 중국어 형용사의 특징

4.2.1 수식 기능

① 명사 수식

중국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23) ㄱ. 好東西(좋은 물건), 小朋友(어린 아이), 新房子(새 집)

ㄴ. 認真的學生(착실한 학생), 端正的態度(단정한 모습)

이때 (23ㄱ)과 같이 명사를 직접 수식할 수도 있고, (23ㄴ)과 같이 구조조사 ‘的’와 함께 수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② 동사 수식

중국어 형용사는 동사를 수식할 수 있다. 이때는 구조조사 ‘地’가 붙는 것이 일반적이다.

(24) ㄱ. 熱烈地戀愛(열렬히 연애하다)

ㄴ. 認真地修理(착실히 수리하다.)

4.2.2 형태적 특징(형용사의 중첩)

중국어 형용사는 중첩될 수 있다. 형용사를 중첩하면 그 의미는 기본적으로 같으나 정도는 가중되고 심화되어 문장에서 부사어나 보어로 쓰일 때 정도를 강조하곤 한다. 그러나 관형어로서 쓰일 때는 정도의 강조보다는 묘사의 기능이 강하고, 내면에는 호감을 포함하게 된다. 형용사는 다시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지 않고 또 부정부사 ‘不’의 수식도 받지 않는다. 단음절의 형용사를 중첩할 때 중첩된 부분은 본래의 성조로 읽을 수도 있고 제1성으로 바꾸어 兒化시킬 수도 있다.

(25) ㄱ. 早早(zǎo zǎo) : 早早兒(zǎo zǎor) 아주 일찍

ㄴ. 遠遠(yuǎn yuǎn) : 遠遠兒(yuǎn yuǎnr) 아주 멀리

ㄷ. 我自己會走, 我要走得遠遠的。

(난 혼자서도 갈 수 있어, 난 아주 멀리 갈 거야.)

ㄹ. 小女孩彎彎的眉毛, 大大的眼睛, 紅紅的嘴唇, 很可愛。

(여자아이의 ...커다란 눈, 붉은 입술은 아주 귀엽다.)

이음절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AABB’의 형식으로 중첩된다. 문장 안에 부사어나 보어로 쓰일 때는 정도를 강조하며, 관형어로 쓰일 때는 묘사의 효과를 강조하게 된다. 술어로 쓰이게 될 때는 단독 술어로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둘째, 셋째 음절은 경성으로 발음된다.

- (26) ㄱ. 乾乾淨淨(gān gan jing jing), 整整齊齊, 恭恭敬敬
 ㄴ. 高高興興(gāo gao xing xing), 辛辛苦苦, 匆匆忙忙
 ㄷ. 小王親親熱熱地問長問短。
 (왕씨는 다정스럽게 여러 가지를 물어 보았다.)
 ㄹ. 他家來了一個斯斯文文的姑娘。
 (그의 집에 정숙한 아가씨가 한 명 들어왔다.)

소수 ‘ABAB’의 형식으로 중첩되는 형용사도 있는데 수식 구조의 형용사가 주류를 이룬다. 이 경우 첫째, 셋째 음절에 강세가 온다.

- (27) 通紅通紅, 雪白雪白, 冰涼冰涼

또 소수 ‘A里AB’의 형식으로 중첩되는 형용사도 있는데 경멸과 증오의 부가적 의미가 있다.

- (28) 骯裏骯髒, 別裏別扭, 哆裏哆嗦, 流裏流氣, 囉裏囉唆, 馬裏馬虎

또 ‘ABB’형식의 중첩이 있는데 이는 일종의 보조음을 사용하는 것으로 단음절 형용사가 기타 단음절 단어에 보조음이 붙어 ‘ABB’의 형식을 구성한 것이다.

- (29) 熱乎乎, 酸溜溜, 香噴噴, 綠油油, 慢騰騰, 紅通通, 亂哄哄, 硬邦邦, 水汪汪霧蒙蒙, 麵乎乎, 金燦燦, 活生生, 鬧哄哄, 笑哈哈, 死板板

형용사가 중첩되지 않고 관형어가 되면 구조조사 ‘的’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첩된 경우 반드시 뒤에 ‘的’를 사용하여야 한다.

- (30) ㄱ. 這是一件乾淨衣服° 이것은 깨끗한 옷이다.
 ㄴ. 這是一件乾淨的衣服°

- (31) ㄱ. *這是一件乾乾淨淨衣服°
 ㄴ. 這是一件乾乾淨淨的衣服°

형용사가 직접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직접 부사어가 될

수 있는 형용사는 ‘早, 晚, 多, 少, 緊, 忙, 快, 慢, 難, 一般, 正式, 普通, 積極, 公開, 容易, 直接, 詳細, 隨便, 認真’ 등이다. 이 음절 형용사가 부사어가 되려면 일반적으로 뒤에 구조조사 ‘地’를 써야 한다. 그러나 중첩된 형용사는 그 뒤에 ‘地’를 쓰지 않고도 부사어가 될 수 있다.

(32) ㄱ. 道兒很滑, 請慢走。(길이 미끄러우니 천천히 가시오)

ㄴ. 我們要認真(地)研究今後的工作計劃。

(우리는 진지하게 향후 업무계획을 연구해야 한다.)

(33) ㄱ. *他們乾淨掃了屋子。

ㄴ. 他們乾淨地掃了屋子。(그 사람들은 집을 깨끗이 청소했다.)

ㄷ. 他們乾乾淨淨(地)掃了屋子。

朱德熙(1956)는 형용사의 중첩형은 형용사의 기본형과 뜻은 같다. 틀린 점은 형용사의 기본형은 속성만을 표시하지만 형용사의 중첩형은 속성을 표시하는 동시에 또한 말하는 사람의 이 속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표시한다. 다시 말하자면 형용사의 중첩형은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포함 시킨다. 형용사의 중첩형은 문장에서 관형어, 서술어, 부사어 및 보어로 쓰일 수 있다. 또한 어느 위치에 있는 불완전 중첩형은 어떠한 성분이 되던 증오하거나 경시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一瞧見他那傻裏傻氣的樣子, 我就心煩。

그러나 형용사의 완전 중첩형은 그것 보다 많이 복잡하다. 그 이유는 형용사의 완전 중첩형은 형용사의 불완전중첩형처럼 나타내는 감정색채가 현저한 것이 아니고, 게다가 문장에 있는 위치에 따라 나타내는 감정 경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완전 중첩형은 부사어와 보어로 쓰일 때 강조의 느낌이 있고 관형어와 서술어로 쓰일 때 강조의 느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친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위에서 서술한 것은 오직 단음절 형용사에만 적용된다. 이 음절 형용사의 중첩형을 관형어와 서술어로 쓰일 때 친절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중국어 형용사는 전부 다 중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음절 형용사 중 절대적형용사, 예를 들면:真(진짜이다),假(가짜),錯(틀리다),对(맞다)등등 혹은 어떤 이른바 안 좋은 뜻을 나타내는 단어:坏(나쁘다),脏

(더럽다), 丑(못나다), 臭(냄새 등이 고약하다), 穷(가난하다)등은 중첩할 수 없다.

4.2.3 통사적 특징

① 정도부사의 수식

형용사는 정도부사 ‘很, 非常, 十分, 太, 最’등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사(심리 활동을 표시하는 동사는 예외)는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통사적으로 형용사와 동사는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

(34) ㄱ. 好(좋다) : 很好, 非常好, 十分好, 太好, 最好

ㄴ. 清楚(분명하다) : 很清楚, 非常清楚, 十分清楚, 太清楚, 最清楚

ㄷ. 重要(중요하다) : 很重要, 非常重要, 十分重要, 太重要, 最重要

형용사가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음에 있어 일부 예외가 있다. 수식 구조의 형용사(‘雪白, 血紅, 漆黑, 筆直, 冰涼, 噴香, 通紅, 刷白, 慘白, 鮮紅 등’)는 단어 자체에 이미 정도의 뜻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정도의 차별이 설정될 수 없는 형용사(‘真, 假, 錯, 絕對, 唯一’ 등)와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許多, 好些, 全部’ 등)와 비술어 형용사(‘個別, 主要’는 제외)는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상태를 표시하는 형용사도 ‘很’의 수식을 받지 못한다.

(35) *很筆直 / *很雪白 / *很火紅 / *很濃郁 / *很通紅

중첩된 형용사는 그 자체가 정도를 나타내므로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36) *很形形色色 / *很乾乾淨淨 / *很古里古怪

② 보충어와 목적어의 허용 여부

형용사는 보충어를 가질 수 있다.

(37) ㄱ. 那個人坏透了。(그 사람은 정말 못됐어.)

ㄴ. 他緊張地說不出話來。(그는 긴장해서 말도 나오지 않았다.)

ㄷ. 他太害羞了, 連耳朵都紅起來了。

(그 여자는 너무 부끄러워 귀까지 빨개졌다.)

ㄹ. 他一天到晚忙得不可開交。

(그 사람은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바빴다.)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목적어를 가질 수 없다. 단, 일부의 형용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데 의미상 ‘使+목적어+형용사’와 같은 사역의 뜻을 나타낸다. 이를 혹자는 형용사가 동사로 전성되었다고 간주하기도 한다.

(38) ㄱ. 嚴格 訓練嚴格 (훈련이 엄격한) [형용사 용법]

ㄴ. 嚴格訓練 (훈련을 엄격히 하다) [동 사 용법]

(39) ㄱ. 繁榮 經濟繁榮 (경제가 번영한) [형용사 용법]

ㄴ. 繁榮經濟 (경제를 번영시키다) [동 사 용법]

(40) ㄱ. 密切 關係密切 (관계가 밀접한) [형용사 용법]

ㄴ. 密切關係 (관계를 밀접하게 하다) [동 사 용법]

(41) ㄱ. 豐富 內容豐富 (내용이 풍부한) [형용사 용법]

ㄴ. 豐富內容 (내용을 풍부하게 하다) [동 사 용법]

(42) ㄱ. 便利 交通便利 (교통이 편리한) [형용사 용법]

ㄴ. 便利交通 (교통을 편리하게 하다) [동 사 용법]

더욱이 단음절 형용사는 동사와 겸용으로 어떤 형태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동사로 사용된다.

(43) ㄱ. 紅着臉 (얼굴을 붉히다)

ㄴ. 直起腰來 (허리를 펴기 시작하다)

ㄷ. 凉了半截 (실망하다)

③ 의문문의 형성

형용사는 긍정형과 부정형을 병렬하여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 이음절 형용사는 긍정형의 둘째 음절을 생략할 수 있다.

(44) ㄱ. 這本辭典好不好? (이 사전 좋아? 안 좋아?)

ㄴ. 那件衣服漂(亮)不漂亮? (그 옷 예뻐? 안 예뻐?)

ㄷ. 那個房間乾(淨)不幹淨? (그 방 깨끗해? 안 깨끗해?)

④ 동태조사와의 결합

일부 형용사는 동태조사 ‘了, 着, 過’와 어울려 쓰일 수 있고 상의 의미를 나타낸다.

- (45) ㄱ. 請慢着! (잠시만 기다리세요.)
- ㄴ. 他低着頭寫字。(그는 고개를 숙이고 글을 쓴다.)
- ㄷ. 小李的電子錶快了一分鐘。(이군의 전자시계는 1분이 빠르다.)
- ㄹ. 對了三道題, 錯了一個字。(3문제를 맞췄고, 한 글자를 틀렸다.)
- ㅁ. 他從來沒有跟我紅過臉。(그 사람은 나와 얼굴을 붉혀본 적이 없다.)

4.2.4 품사 겸용

형용사가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면 부사의 기능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것을 형용사와 부사와의 겸용현상이란 한다.

- (46) ㄱ. 白 → 他白跑了一趟。(그는 한 번 헛걸음을 했다.)
- ㄴ. 快 → 他快回來了。(그는 곧 돌아올 것이다.)
- ㄷ. 光 → 他天天光說不做。(그는 매일 말만하고 실행하지 않는다.)
- ㄹ. 真 → 我真了解了。(나는 정말로 이해했다.)
- ㅁ. 早 → 他早來了。(그는 오래 전에 왔다.)
- ㅂ. 全 → 人人全錯了。(누구나 모두 틀렸다.)

형용사가 명사의 어법 특성을 갖고 있을 때에는(量詞나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때) 명사에 속한다. 이러한 것을 형용사와 명사와의 겸용현상이라 한다.

- (47) ㄱ. 困難 → 一些困難 (약간의 곤란)
- ㄴ. 痛苦 → 好多痛苦 (많은 고통)

이상과 같이 한국어와 중국어의 형용사 특성을 알아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형용사는 동사와 같은 어미활용이 가능하지만, 중국어 형용사에서는 특별한 어미활용이 없다.

둘째, 한국어 형용사에는 시제와 상이 나타나지만 중국어 형용사에는 상의 개념만 있지 시제의 개념이 없다.

셋째, 한국어 형용사에는 인칭의 제한 있지만, 중국어 형용사는 인칭의 제

한이 없다.

넷째, 중국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바로 명사와 결합할 수 있는데 반하여, 한국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꼭 어미를 붙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어 형용사는 중국어 형용사처럼 형용사의 중첩 시의 상황적인 요구가 많지 않다.

4.3 한·중 형용사 기능의 비교

형용사는 용언으로서 문장 속에서 여러 가지 문법 기능을 표시할 수 있다. 문법 기능을 제대로 표시하려면 여러 가지 형태적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한·중 두 언어의 형용사는 문장에서 어떤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 시제와 부정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 문제는 결국은 형용사 비교에서 빠질 수 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는 통사적 기능의 측면에서 형용사가 각자 언어에서 담당하는 문장성분에 대한 분석을 한·중 두 언어 형용사의 활용 양태와 통사적 기능에 대하여 비교하고자 한다.⁶⁾

중국어 형용사는 문장에서 謂語(서술어), 定語(관형어), 狀語(부사어), 補語(보어), 賓語(목적어), 主語(주어) 등의 문장 성분이 될 수 있고, 한국어 형용사는 문장에서 서술어, 관형어, 등의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그 구체적인 활용과 기능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6) 김정남은 ‘한국어 형용사는 어미 활용을 하는 용언의 하나이고 다양한 활용형으로 문장 속에 실재한다. 그러므로 형용사의 활용 양상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형용사 연구의 중요한 일부가 된다.’라고 지적했듯이(김정남, 「국어 형용사의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8) ‘활용’은 한국어 형용사의 주요 특징이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활용’은 형태론의 대상으로서 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용언의 문장 속에서의 지위나 그 용언이 서술어로 사용된 문장의 서법적 특징은 어말어미를 통하여 드러나고, 그 용언의 시제나 동작상, 또는 높임과 관련한 통사·의미론적 기능은 선어말 어미를 통하여 드러난다. 그러므로 용언의 활용은 형태론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통사론적 현상이다’라고 지적한 김정남의 견해를 받아들여 한·중형용사 활용에 대한 비교도 이 부분에서 함께 논하고자 한다.

4.3.1 서술어로서의 형용사

한국어 형용사는 주어의 상태나 성질 등을 서술하는 서술어가 될 수 있다. 형용사가 관형어가 되려면 관형형으로 바뀌어야 하듯이 형용사가 서술어가 되려면 활용 형식으로 나타나야 한다⁷⁾.

형용사가 종결형으로 쓰일 때 끝에 오는 어미는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시-, -었-’처럼 그 자체만으로는 단어를 완성하지 못하고 반드시 ‘-다’와 같은 어미를 요구하는 개방 형태소이고 후자는 ‘-다’처럼 이 형태소만으로도 단어를 완성시킬 수 있는 폐쇄 형태소이다. 형용사 뒤에 붙일 수 있는 주요 선어말어미와 그 배열의 차례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왕단(2005)참조)

- ① 주체높임법: -시-
- ② 시제: -Ø-(현재), -었-(과거), -겠-(미래, 추측)
- ③ 상대높임법의 합쇼 체: -ㅁ-
- ④ 서법: -더-
- ⑤ 강조법: -것-, -나-

한국어의 종결어미는 문장을 끝맺는 데 쓰는 것으로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약속법, 허락법, 감탄법 등의 문체법과 청자에 대한 존비법(尊卑法)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형용사의 경우는 명령법, 청유법, 약속법, 허락법 어미와의 결합을 허용하는 동사와 달리 평서법과 의문법, 감탄법의 세 가지 유형의 어미와의 결합형만을 갖고 있다. 그 양상은 다음과 같다.

7) 서술어는 종결형뿐만 아니라 연결형, 명사형으로도 나타난다.

- (1) ㄱ. 그의 행동이 빠르고 민첩하다.
 - ㄴ. 이 지방은 빼어난 경치가 많고 인심도 좋다.
 - ㄷ. 그가 체육에도 뛰어났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 글에서 논의의 초점은 형용사이지 어미에 대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형용사가 종결형으로 사용될 때의 활용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표7〉 한국어 형용사 어미와의 결합양상(왕단(2005)참조)

	합쇼체	해요체	하오체	하계체	해체	해라체
평서법	-습니다/-습니다	-어요, -지요	-오/-소	-(으)이, -네	-어	-다
의문법	-니까/-습니까	-어요, -지요, -나요	-오/-소	-(으)니까, -나	-어	-(으)냐, -니
감탄법	-구료	-군요	-오/-소	-네그러	-군	-구나, -도다, -어라

복잡한 형태 변화가 없는 중국어 형용사는 바로 이런 점에서, 한국어 형용사와 크게 다르다. 또한 한국어 중에서 서술어가 된 형용사 대부분은 주어와 어울려야만 문장을 이룰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48) ㄱ. 건물이 높다.

- ㄴ. 그 시절이 정말 좋았다.
- ㄷ. 딸이 엄마와 얼굴이 똑같다.
- ㄹ. 나는 그 사람이 좋다.
- ㅁ. 이 운동은 나에게 적합하다.

위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서술어의 기능을 하기 위하여 주어 한 자리만 필요로 하는 것도 있고, 주어 외에 또 다른 한 자리의 성분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다. 즉 형용사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수의 격을 요구한다. 이러한 것들을 각각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라고 부른다. 두 자리 서술어가 한 자리의 격과만 나타나면 그 문장은 불완전한 것이 된다.

(49) ㄱ. *딸이 얼굴이 똑같다.

- ㄴ. *나는 싫다.

이 점 역시 중국어와 많이 다르다. 중국어에서는 ‘나는 그 사람이 좋다’, ‘나는 고양이가 무섭다’의 뜻은 ‘我喜歡那個人’, ‘我害怕貓’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람’과 ‘고양이’는 문장의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이고 ‘喜歡’, ‘害怕’이라고 번역된 ‘좋다’, ‘무섭다’는 중국어에서 형용사가 아니고 타동사로

8) 물론 중국어의 ‘喜歡, 害怕, 討厭’ 등 타동사는 한국어로 ‘좋아하다, 무서워하다, 싫어하다’로도 번역될 수도 있는데 이는 한국어 심리형용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중국어 어휘에는 이러한 특징을 찾을 수 없다.

인식된다. 다시 말해 중국어에는 한국어의 주격중출 구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중국어 형용사도 다른 조건 없이 주어와 결합할 수만 있으면 서술어로 쓰일 수 있다. 이는 중국어 형용사의 주요 기능이기도 한다. 형용사가 서술어로 된 문장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是’가 없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계사 ‘是’가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형용사 서술어 문장은 형용사 앞에 계사 ‘是’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是’를 사용하면 강조 긍정의 의미를 나타내며, 이 때 ‘是’에 강세가 있다.

(50) ㄱ. 這個房間很暖和。(이 방이 아주 따뜻하다.)

ㄴ. 這個房間是很暖和。(이 방이 아주 따뜻하다.)

중국어 ‘是’는 문장에서의 위치, 수식하게 되는 문장성분의 종류, 바로 뒤에 오는 문장성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성질로 구분된다. 그래서 “是+名詞”에서 ‘是’는 동사와 계사로 분류되고, ‘是+非名詞’에서의 ‘是’는 동사와 부사로 분류된다. 부사 ‘是’는 문장에서 사물의 성질을 강조하고, 긍정적인 느낌을 더해주며, ‘확실히’, ‘실제로’ 등의 뜻을 갖게 된다. 또한 뒤에 오는 명사 이외의 성분을 수식할 수 있게 된다.

(51) ㄱ. 你是聰明。(당신은 정말로 똑똑해요!)

ㄴ. 這孩子是漂亮。(이 아이가 정말로 예뻐요!)

‘是’는 여기에서 부사어로 쓰인 것이고 ‘정말로, 확실히’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성분은 아니다. ‘是’가 없어도 문장의 구조와 기본 의미는 같으며, 다만 여기가 조금 약화될 수 있다.

(52) ㄱ. 你聰明。(당신은 똑똑해요!)

ㄴ. 這孩子漂亮。(이 아이가 예뻐요.)

그리고 부사 ‘是’는 부정 형식이 없다. 뒤에 내용의 부정을 표현하고 싶으면 ‘是’ 뒤에 ‘不’를 붙인다.

(53) ㄱ. 你是聰明：你是不聰明。(당신은 정말 똑똑하지 않아요.)

ㄴ. 這孩子是漂亮：這孩子是不漂亮。(애는 정말 안 예뻐요.)

형용사가 술어로 쓰이면 앞에 ‘很’을 붙인다. ‘很’은 ‘매우, 대단히’의 의미를 지닌 부사지만 형용사 앞에 쓰이면 원래의 의미는 소실되고 문장을 종결짓는 어법작용을 할 뿐이다. ‘정반의문문’에서는 ‘很’을 쓸 필요가 없다.

(54) ㄱ. 他個子高不高? (그는 키가 크니?)

他個子很高。 (그는 키가 커.)

ㄴ. 她漂亮不漂亮? (그녀는 예쁘니?)

她很漂亮。 (그녀는 예뻐.)

형용사 술어문의 부정은 단순 부정에는 ‘很’이 필요 없이 형용사 앞에 ‘不’를 쓰면 되고, 부분 부정은 ‘不很……’ 전체 부정은 ‘很不……’로 나타내면 된다.

(55) ㄱ. 這間房子不幹淨。 (이 집은 깨끗하지 않다.)

ㄴ. 這間房子不很乾淨。 (이 집은 그리 깨끗하지 않다.)

ㄷ. 這間房子很不乾淨。 (이 집은 아주 깨끗하지 않다.)

형용사가 ‘很’을 붙이지 않고 단독으로 술어가 되면 ‘이것은 ~하지만, 저것은 ~하다’는 ‘비유·대조’의 의미를 갖는다.

(56) ㄱ. 這個蘋果貴。

這個蘋果貴，那個蘋果便宜。 (이 사과를 비싸고 저 사과를 싸다.)

ㄴ. 這些橘子甜。

這些橘子甜，那些橘子酸。 (이 귤들은 달고 저 귤들은 시다.)

형용사의 중첩형(상태형용사)이 술어로 쓰이면 대개 뒤에 ‘的’를 붙여야 한다.

(57) 她眼睛大大的，亮亮的。 (그녀는 눈이 크고 반짝거린다.)

4.3.2 관형어로서의 형용사

형용사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는 중심어인 체언의 앞에 놓여 그 체언을 수식하는 것이다. 한국어 형용사는 관형어가 될 수 있고, 관형어일 때 반드시 그의 수식을 받는 중심어의 앞에 놓인다는 점은 중국어와 같다. 하지만 한국어 형용사는 활용어⁹⁾이기 때문에 수식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활용을 해야 한다. 형용사의 활용형은 종결형, 연결형, 전성형으로 나눌 수 있고

9) 단어의 줄기가 되는 부분에 변하는 말이 붙어 문장의 성격을 바꾸는 일을 ‘활용’ 또는 ‘끝바꿈’이라고 한다. 이렇게 활용하는 단어를 ‘활용어’라고 한다. (남기삼·고영근, 「표준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2001, 127-128쪽)

각 활용형은 기능상의 특수성에 따라 평서형, 의문형, 감탄형, 관형사, 명사형 등으로 더 세분될 수 있다¹⁰⁾. 형용사가 관형어가 될 때는 관형사형 어미 ‘-은/ㄴ’, ‘-던¹¹⁾’ 중의 하나를 취함으로써 그 시간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¹²⁾ 중국어 형용사와 다르다.

- (58) ㄱ. 밝은 얼굴, 뾰족한 말
 ㄴ. 훌륭한 사람
 ㄷ. 날씬했던 동생

위의 예에서 보듯 ‘밝은, 뾰족한’의 ‘-은/ㄴ’은 현재 상태의 의미로 쓰이고 ‘훌륭하던’의 ‘-던’은 과거의 선어말어미 ‘-었-’과 결합해 나타나기도 하는데, 과거의 상황을 나타내 주고 있다.

중국어 형용사가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 구조조사 ‘的’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的’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단음절 형용사는 구조조사 ‘的’없이 중심어를 직접 수식한다.

- (59) ㄱ. 這是短裙, 那是長裙.

(이것은 미니스커트이고, 그것은 롱스커트이다.)

- ㄴ. 金髮好看, 黑髮難看. (금발은 예쁘고, 검은 머리는 보기 싫다.)

그러나 ‘淺海’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淺河’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처럼 중국어 형용사는 명사와 직접 연결될 때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이런 경우에는 ‘很淺的河’처럼 ‘형용사구+명사’로 나타낼 수 있다.

- (60) ㄱ. 淺海 (낮은 바다), *淺河 (낮은 강), 很淺的河 (낮은 강)

- ㄴ. 白紙 (흰색 종이), *白手 (흰 손), 雪白的手 (백설같이 흰 손)

10) 남기삼·고영근, 「표준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2001, 128-129쪽

11) 동사 관형절에서는 현재, 과거, 과거미완으로 삼분되는 것이, 형용사 관형절에서는 현재와 과거미완으로만 이분되어 나타난다. (이익섭·채완, 289쪽)

12) 관형어의 서술어가 동사일 때는 ‘떠남 사람, 읽은 책’에서의 ‘-ㄴ/은’은 과거 시제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떠남 사람, 읽은 책’에서는 ‘-ㄴ/은’에 해당하는 어미가 형용사에는 없는 것 같다. 이때 형용사 관형어의 ‘-ㄴ/은’이 동사 관형어의 ‘-는’과 ‘-은’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지, 아니면 오히려 형용사의 ‘-은’이 동사의 ‘는’보다는 ‘-은’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형용사 관형어에는 진행의 자리가 완전히 공백으로 남는다고 하여야 할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익섭·채완, 287-290)

- ㄷ. 香花兒 (향긋한 꽃), *香飯 (향긋한 밥), 香噴噴的飯 (향긋한 밥)
- ㄹ. 貴東西 (비싼 물건), *貴寶石 (비싼 보석), 很貴的寶石 (아주 비싼 보석)

수식성을 강조하려 할 경우에는 뒤에 구조조사 ‘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형용사 앞에 흔히 정도 부사 ‘很’을 쓴다.

- (61) (很)新的書 (아주 새 책), (很)白的床單 (아주 흰 식탁)

이음절 형용사가 단음절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조조사 ‘的’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형용사와 명사의 연결이 견고하여 하나의 명사로 인식되면 ‘的’를 쓰지 않는다.

- (62) ㄱ. 誠實的人 (성실한 사람), 重要的事 (중요한 일)
- ㄴ. 清潔 (청결하다) : 清潔工 (청소부) / *清潔的工
- ㄷ. 清明 (맑고 깨끗하다) : 清明節 (청명절) / *清明的節
- ㄹ. 荒唐 (황당하다) : 荒唐鬼 (방탕아) / *荒唐的鬼

이음절 형용사가 이음절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조조사 ‘的’를 사용하나 생략할 수도 있다.

- (63) ㄱ. 乾淨(的)衣服 (깨끗한 옷)
- ㄴ. 美滿(的)婚姻 (행복한 결혼)
- ㄷ. 上好(的)茶葉 (최상의 차잎)

반복 형용사(상태형용사)가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조조사 ‘的’를 사용해야 한다.

- (64) ㄱ. 乾乾淨淨的衣服 (아주 깨끗한 옷)
- ㄴ. 甜甜蜜蜜的婚姻 (아주 달콤한 결혼)
- ㄷ. 香噴噴的肉 (아주 향긋한 고기)

4.3.3 부사어로서의 형용사

한국어 형용사는 어미 ‘-게’에 의하여 부사어를 이룰 수 있다. 중국어에서는 형용사가 부사어를 이룰 때 ‘地’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형용사가 부사어가 되려면 어간에 반드시 ‘-게’를 붙여야 한다.¹³⁾

(65) ㄱ. 회의가 더디게 진행되었다. (會議慢慢(地)進行)

ㄴ. 이상하게 오늘은 운수가 좋다. (今天運氣異常得好)

중국어 형용사도 부사어가 될 수 있고 부사어가 반드시 중심어 앞에 놓여야 한다는 점은 한국어 형용사와 비슷하나, 몇 가지 독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음절 형용사는 직접 부사어가 되어 중심어를 수식한다.

(66) ㄱ. 遠看近看都很漂亮. (멀리 보나 가까이 보나 다 예뻐.)

ㄴ. 少吃多運動能長壽.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면 장수할 수 있다.)

ㄷ. 小馬經常早來晚走. (그는 항상 일찍 오고 늦게 간다.)

이음절 형용사가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구조조사 ‘地’를 사용할 수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구조조사 ‘地’를 사용하면 수식성이 강조된다.

(67) ㄱ. 痛快地答應. (시원스럽게 허락하다.)

ㄴ. 嚴肅地指出. (엄숙하게 지시하다.)

ㄷ. 努力(地)學習. (열심히 공부하다.)

ㄹ. 隨便(地)談談. (마음대로 얘기하다.)

형용사구가 동사를 수식할 때는 ‘地’를 쓴다. 그러나 일부의 다음절 형용사구는 ‘地’를 생략해서 쓸 수도 있고, 혹자는 직접 동사를 수식한다.

(68) ㄱ. 很靈活地處理 (융통성 있게 처리한다.)

ㄴ. 很熱情地招待 (열정적으로 접대하다.)

ㄷ. 很快(地)解決 (빨리 해결하다.)

ㄹ. 很快(地)學習 (잘 배우다.)

ㅁ. 很少提到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ㅂ. 很難想象 (상상하기 어렵다.)

반복된 이음절 형용사가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조조사‘地’를 사용해야 한다.

(69) ㄱ. 他們高高興興地談着.

(그 사람들은 기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13) 왕단 「한중 형용사 대비 연구」, 국어국문학회, 제139권, 2005, 25-26쪽.

ㄴ. 她每天都在緊緊張張地工作。(그녀는 매일 긴장하며 일한다.)
반복된 단음절 형용사가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구조조사 ‘地’를 사용할 수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70) ㄱ. 慢慢兒(地)說。(천천히 말씀하세요!)

ㄴ. 他早早(地)走了。(그는 일찍 갔다.)

4.3.4 주어, 목적어, 보어로서의 형용사

왕단(2005)에서 한국어 형용사는 형태 변화 없이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지 못한다. 이것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중국어와 한국어가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

중국어 형용사는 주어로 쓰여 판단의 대상이 된다. 이 때 형용사나 판단을 나타내는 동사가 술어로 사용된다. 그러나 중국어 형용사가 주어의 역할을 하게 되면 서술어에 대한 조건이 발생한다. 이때 서술어로 계사를 필요로 하고, 서술어는 ‘使’, ‘让’, ‘叫’ 등이 있다.

(71) ㄱ. 勤勞是一種美德。(근면함은 일종의 미덕이다.)

ㄴ. 謙虛使人進步，驕午使人落後。

(겸손은 사람을 발전시키고, 교만은 사람을 후퇴하게 한다.)

중국어 형용사는 목적어로 쓰일 때도 많다.

(72) ㄱ. 他非常怕冷。(그는 무척 추위를 무서워한다.)

ㄴ. 女孩子都愛漂亮。(여자아이들은 모두 예쁘기를 좋아한다.)

대부분 중국어 형용사는 동사 바로 뒤에 붙어 결과보어로 쓰이거나 ‘동사+형용사/형용사구’의 형태로 정도 보어에 쓰이거나 ‘동사+형용사’의 형태로 가능보어로 활용할 수 있다.

(73) ㄱ. 頭髮剪短了。(머리를 짧게 잘랐다.)

ㄴ. 今天他來得很早。(오늘 그는 빨리 왔다.)

4.3.5 다른 품사의 기능

① 부사 기능

중국어의 일부 형용사는 동사와 형용사를 수식할 때 의미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법상 부사와 같으며, 이 때 부사기능을 겸하게 된다.

- (74) ㄱ. 直(不斷地) : 這個孩子直哭。(이 아이는 계속 운다.)
- ㄴ. 怪(很, 非常) : 跑了一天, 怪累的。(하루종일 뛰었더니, 매우 피곤하다.)
- ㄷ. 老(总是) : 他怎麼老不說實話。(그 사람은 웬지 줄곧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 ㄹ. 全(都) : 我十道題全對了。(난 10문제 다 맞췄다.)
- ㅁ. 白(徒然) : 今天又白跑了一趟。(오늘 헛걸음을 했다.)
- ㅂ. 光(只, 单) : 不能光說不做。(말만 하고 실천을 안 하면 안 된다.)
- ㅅ. 快(時間接近) : 小劉快出國了。(리우는 금방 출국할거다.)
- ㅇ. 偏(只有, 就) : 大家都高高興興, 偏你一個人人生氣。(모두들 기뻐하는데, 유독 너만 화를 낸다.)
- ㅈ. 死(不靈活, 程度高等) : 學習的時候不要死記硬背。
(공부할 때 무조건 외우기만 해서는 안 된다.)
這個箱子死沉死沉的。
(이 상자는 몹시 무겁다.)
- ㅊ. 早(很久以前) : 我們早就認識了。(우리는 일찍부터 서로 알았다.)
- ㅋ. (的確, 實在) : 今天的電影真好。(오늘 영화 정말 좋았어.)
- ㅌ. 干(徒然) : 這件事他乾着急沒辦法。
(이런 일은 조바심만 나고, 처리할 수가 없다.)

이런 부사는 주로 구어체에서만 볼 수 있다.

② 동사 기능

형용사 중 목적어를 가질 수 있거나, 동사의 중첩 방식처럼(ABAB식) 중첩이 가능하다면 동사의 기능을 겸하게 될 수 있다.

다음은 목적어를 가질 수 있으며, 동사의 중첩방식으로 중첩이 가능하고, 형용사의 중첩방식으로도 중첩할 수 있는 경우이다.

- (75) 목적어 후행 가능 : 동사, 형용사의 중첩 방식으로 중첩 가능
紅, 壯, 正, 斜, 平, 松, 餓, 多, 短, 直, 燙

다음은 목적어를 가질 수 있고 동사의 중첩방식으로 중첩할 수 있다. 다만 형용사의 중첩방식은 취할 수 없다.

(76) 목적어 후행 가능 : 동사의 중첩 방식으로도 중첩 가능

習慣, 充實, 坦白, 公開, 緩和, 統一, 孤立, 講究

다음은 목적어를 가질 수 있지만 동사의 중첩방식으로는 중첩할 수 없고, 다만 형용사의 중첩방식만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이다.

(77) 목적어 후행 가능 : 형용사의 중첩 방식으로도 중첩 가능

厚, 亂, 黑, 髒, 多, 少, 苦, 死, 勉強, 模糊

다음의 예들은 목적어를 가질 수 있지만 중첩할 수 없는 경우이다.

(78) 목적어 후행 가능 : 중첩 불가능

龔, 瞎, 癩, 對, 錯, 堅定, 討厭, 忠誠, 便宜

마지막으로 다음의 예는 목적어를 가질 수 없고, 동사와 형용사의 중첩방식으로 중첩할 수 있는 경우이다.

(79) 목적어 후행 불가 : 동사, 형용사의 중첩 방식으로 중첩 가능

高興, 熱鬧, 涼快, 安靜, 愉快, 乾淨, 漂亮

③ 명사 기능

형용사는 구체적인 사물을 가리킬 때나 명사의 일부 특징을 가질 수 있을 때 명사의 기능을 겸할 수 있다.

(80) 橫, 豎, 苦, 規矩, 秘密, 保險, 便宜, 方便, 熱鬧, 困難, 痛苦, 煩惱

朱德熙(1956)는 형용사는 간단형식과 복잡형식으로 수식한다고 하였다. 다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간단형식에는 다시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 모두 세 가지 형식으로 명사를 수식한다. 간단형식을 각각 甲1 형식과 甲2 형식의 로도, 복잡형식을 乙 형식으로 나누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81) ㄱ. 白紙 [甲1]
 ㄴ. 白的紙 [甲2]
 ㄷ. 雪白的紙 [乙]¹⁴⁾

14) 甲1, 甲2, 乙의 형식으로 분류하는 방법은 朱德熙선생님의 분류법이다.

이때 갑의 관형어는 제한성이 있고 을의 관형어는 묘사성이 있다.

다음으로 ‘甲的’는 서술어로 쓰일 때 앞에 반드시 계사가 있어야 하고, ‘乙的’는 계사 없이 바로 서술어로 쓰일 수 있다.

(82) ㄱ. 這個是大的。(이것은 큰 것입니다.)

ㄴ. 那件是新的。(그것은 새 것입니다.)

ㄷ. 他臉上紅紅的, 眼睛亮亮的。

‘甲的’는 부사의 수식을 받지 않지만 ‘乙的’는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일 때 계사가 있는 것과 계사가 없는 것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갑은 계사가 없는 서술문에 쓰이고 비교와 대조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보통 두 가지가 비교 또는 대조되어 서술된다.

(83) 今兒冷, 昨兒暖和。(오늘은 춥고 어제는 따뜻하다.)

을은 술어로 쓰일 때 비교와 대조의 뜻이 없어서 독자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84) 今天怪冷的。(오늘은 정말 춥다.)

갑은 서술어로 쓰일 때 사물의 영원성 혹은 정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을은 서술어로 쓰일 때 잡재의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

형용사가 부사어로 쓰일 때 동작의 방식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이런 상태는 묘사성이 있고 제한이 없어서 갑 종류의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이런 부사어로 쓰이지 않고 을 종류의 형용사나 특히는 형용사의 중첩 식은 부사어로 많이 쓰인다.

呂叔湘은 형용사가 동사를 수식할 때 보통 중첩해야 한다고 하였다. 《語法講話》에서 방식 혹은 상태를 묘사하는 동사가 수식어로 사용될 때 “대다수는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중첩한다.”라고 하였다.

형용사는 또 다른 기능이 있다. 즉 동사나 형용사 뒤에 놓고 동작의 상태와 정도를 설명하는 보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중 형용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상의 대비 연구를 통하여, 한국어 형용사와 중국어 형용사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첫째, 중국어에는 ‘목적어+술어/술어+목적어’의 구조로 구성된 형용사가

있지만, 한국어에는 없다. 반면에 한국어에는 ‘의태부사+하다’와 ‘서술어+보어’로 구성된 형용사가 있지만 중국어에는 없다.

둘째, 한국어 형용사와 중국어 형용사는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로서 쓰일 수 있다는 점은 같으나, 중국어 형용사는 한국어 형용사와 달리 주어, 목적어, 보어로도 쓰일 수 있다.

셋째, 한국어 형용사 구문 중에는 중국어에는 없는 주격중출 구문이 있다.

넷째, 중국어 형용사가 관형어, 서술어로 사용될 때는 형태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한국어 형용사가 관형어, 서술어로 사용될 때 아주 복잡한 형태 변화가 있다.

5. 결론

이제까지 형용사를 한국어와 중국어의 개념, 분류, 특징, 기능 등으로 나누어 대비를 해보았다. 이상으로 논의된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다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형용사와 중국어 형용사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첫째, 한국어 형용사는 동사처럼 어미 활용이 있기 때문에 종결어미와 접속어미의 현상을 볼 수 있지만, 중국어 형용사는 어미 활용의 개념이 없어서 이런 어미활용 현상을 볼 수 없다.

둘째, 한국어 형용사는 시제와 상의 표지를 나타낼 수 있지만, 중국어 형용사는 시제의 표지를 나타낼 수 없다.

셋째, 한국어 형용사에서 나타나는 인칭의 제한은 중국어 형용사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넷째, 두 언어 모두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유사하나, 한국어 형용사는 부사의 수식이 제한적이다.

다섯째, 중국어 형용사는 명사와 부사의 겸용현상이 나타나는데, 한국어 형용사에서는 그러한 겸용현상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어 형용사와 중국어 형용사는 기능적 방면에 있어서도 유사점과 차이

점이 있다. 두 언어의 형용사는 모두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로 쓰일 수 있지만, 중국어 형용사는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로 쓰일 때 형태적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한국어 형용사는 부사어와 관형어로 쓰일 때 형태적 변화가 나타난다.

또한 한국어 형용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의 기능이 없는 반면, 중국어 형용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표 8〉한국어와 중국어 형용사의 특징, 기능적 차이점

	특징		기능	
	한국어	중국어	한국어	중국어
어미활용	있음	없음	서술어로 쓰고 형태 변화 있음	서술어로 쓰고 형태 변화 없음
시제와 상	있음	없음	부사어로 쓰고 형태 변화 있음	부사어로 쓰고 형태 변화 없음
인칭의 제한	있음	없음	관형어로 쓰고 형태 변화 있음	관형어로 쓰고 형태 변화 없음
수식	있지만 제한적임	있음	주어, 목적어로 안 씀	주어, 목적어로 씀
겸용현상	없음	명사, 부사	보어로 안 씀	보어로 씀

본 연구는 한국어 형용사와 중국어 형용사의 통사론적과 면에서 양국의 형용사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연구를 해보았다. 그러나 형용사 전체에 대한 종합적 연구는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보인다. 광범위한 자료 수집과 이들의 정밀한 통사론적 형태론적 분석 방법을 통하여 기술적 타당성을 갖춘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종합적인 한국어와 중국어의 형용사 비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략한 비교에 머무른 한계가 있으나, 양국 언어의 형용사의 유의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데 의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본고에서 깊이 논의 되지 않았던 의미론적인 부분과 형태론적인 부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비교를 통하여, 한국어와 중국어 형용사 부분의 비교연구를 진행해볼 예정이다.

❖ 참고 문헌

고영근, 『우리말의 총체 서술과 문법 체계』, 일지사, 1993.

강재원, 『우리말 색채어 어휘 분화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김귀화, 『국어의 격 연구』, 한국문화사, 1994.

김미형, 『형용사의 의미 유형과 구문의 차이』, 제효 이용주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1989.

김상대, 『형용사의 의미 특징』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88.

김승곤, 『현대 나라 말본 형태론』 박이정, 1996.

김영우, 『색채어 분석을 통한 언어 상대성과 언어 보편성 고찰』,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1.

김영철, 『국어의 고유어계 색채어에 관한 연구-형태와 의미 구조 중심으로』,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김영희, 『한국어 통사론의 모색』, 탑출판사, 1988.

김인화, 『현대 한국어의 색채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김세중, 『국어 심리형용사의 몇 가지 문제』, <어학연구 25-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989.

_____, 『국어 심리술어의 어휘의미구조』,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김정남, 『국어 형용사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김중호, 『현대중국어문법』, 신아사, 1998.

김창섭, 『시각 형용사의 어휘론』, 관악어문연구 10,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5.

김홍수, 『현대국어심리동사 구문 연구』, 탑출판사, 1989.

남기심, 「그림씨를 풀이말로 하는 문장의 몇 가지 특징」, 한글학회, 1968.

_____, 고영근,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1985.

민현식, 『국어 문법 연구』, 도서출판 역락, 1999.

박선우, 『현대국어의 색채어의 대한 연구-색채 형용사의 의미 분석 중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박승빈, 『조선어학』, 조선어학연구회, 1935.

박영순, 『한국어 문법교육론』, 박이정, 2002.

봉미경, 『한국어 형용사 유의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서정수, 『국어문법』, 한양대학교출판원, 1996.

신순자, 『형용사의 형태구조적 특성』, 인문논집 7,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오문의, 『현대중국어 형용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_____, 「현대중국어 '非謂形容詞'의 특성 고찰」, <中國文學>, 第18輯, 1990.
- 왕 단,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형용사 기술과 교육 방안』,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_____, 「한중 형용사 대비 연구」, 국어국문학회, 제139권, 2005
- 유현경, 「심리형용사 구문에 대한 연구」, 말 22, 연세대학교 언어교육연구원, 1997.
- _____, 『국어 형용사 연구』, 한국문화사, 1998.
- 이상억, 「국어 어휘목록의 형태·음운론적 구조 연구」, 어학연구 25-1, 서울대학교 어학 연구, 1989.
- 이승녕, 「주격중출의 문장구조에 대하여」, 어문학 20, 한국어문학회, 1969.
- 이정희,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1997.
- 이정민, 배영남 『언어학사전』, 박영사, 1987.
- 이운영, 「한국어 주격 중출 주문에 대한 분석」, 언어학 논집6, 국어교육연구회, 1995.
- 이익환, 『국어 심리동사의 상적 특성』, 애산학회, 1994.
- 임두학, 『현대 한국어 형용사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_____, 「현대 한국어 형용사 연구」 <어문연구>제26-3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8.
- 임홍빈, 『국어의 통사적인 공범주에 대하여』, 어학연구, 1985.
- 장영희, 『접속부사에 대하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정인수, 『국어 형용사의 의미 자질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최창렬, 『한국어의 의미구조』, 한신문화사, 1992.
- 최현배, 『우리말본』(5판), 정음사, 1937/75.
- 허성도, “現代中國語語法研究”, 도서출판 서울, 1992.
- 王力, “中國現代語法”, 商務印書館, 1943.
- 呂叔湘, “試論非謂語形容詞”, 中國語文第四期, 1981.
- _____, “現代漢語詞典”, 修訂本, 商務印書館, 1996.
- _____, “漢語語法分析問題”, 商務印書館, 1979.
- _____, “現代漢語八百詞”, 商務印書館, 1984.
- 朱德熙, “語法講義”, 商務印書館, 1982.
- _____, “現代漢語形容詞研究”, 商務印書館, 1956.
- 呂叔湘 朱德熙, “語法修辭講話”, “語文匯編”, 第十八期 十九期, 1952.
- 張志公, “語法與修辭”(上) 光西教育出版社, 1985.

- 燙廷池, “國語語法研究論集”, 臺灣學生書局, 1979.
- , “漢語語法句法論集”, 臺灣學生書局, 1992.
- 劉月華, “實用現代漢語語法”, 商務印書館, 2002.
- , “關於形容詞的範圍”, 中國語文第四期, 1987.
- 呂冀平, “漢語語法基礎”, 商務印書館, 2000.
- 餘敏, “名詞, 動詞, 形容詞”, 新知識出版社, 1957.
- 申小龍, “試論漢語動詞和形容詞的重疊形態”, 語文論集第二期, 上海市語文學會, 上海教育出版社, 1983.
- , “中國句型文化”,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88a.
- , “中國語言的結構與人文精神”, 光明日報出版社, 1988b.
- 趙元任, “國語語法”, 學海出版社, 1981.
- 陳一, “形容詞做狀語問題再探討”, 哈爾濱師範大學寶, 1987.
- 崔永華, “漢語形容詞分類的現狀和問題”, 語言教學與研究, 1990.
- 黎錦熙, “新著國語文法”, 商務印書館, 1954.
- 沈開木, “現代漢語的詞類問題”, “語言文字學”, 第12期, 1990.
- , “名·動·形分類問題未能解決的原因”, “語法研究和探索”, 中國語文雜誌社, 1991.
- 楊寬仁, “論非定形容詞”, “語言研究”, 第二期, 1985.
- 張永言, “詞類學簡論”, 華中工學院出版社, 1982.
- 中國語文雜誌社, “漢語的詞類問題”, (第一集), “語言滙編”第六輯, 1955.
- 中國語文雜誌社, “漢語的詞類問題”, (第二集), “語言滙編”第六輯, 1955.
- 中國語文雜誌社, “語法論集”, (第一集), “語言滙編”第二十五輯, 1957.
- Dowty, D, *Thematic Proto-Roles and Argument Selection*, Language 67, 547-619, 1988

❖ ABSTRACT

The syntax comparative research of Korean and Chinese Adjectives

Mingjie Dan

The main focus of this dissertation is the comparative research of Korean and Chinese adjectives. With the comparison and contrast of the concepts, features and usages of Korean and Chinese adjectives, we have concluded som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e aim is to help Chinese learners who study Korean better understand the features of Korean adjectives and use them more easily.

Korean belongs to 阿尔泰语族 and expresses meanings with pronunciation; however, Chinese belongs to 汉藏语族 and expresses meanings with characters. There are many similarities between those two languages that look completely different, such as pronunciation and grammar at some extent. Even the Chinese words in Korean are quite similar to Chinese. However, the two languages are very different from each other, from the detailed grammatical view. For instance, the auxiliary word in Korean and Chinese is completely different. Then, Korean has a concept: 语尾 that does not exist in Chinese at all. Especially, about categories of words, it is very important and difficult to distinguish adjective and verb for the Chinese Korean-learners. One reason of the challenge is that some Korean adjectives are categorized as verbs in Chinese. For example, "like", "dislike", "fear" in Korean are "psychological adjective" however, they are "psychological verb" in Chinese. The differences in categorization always mislead learners in understanding whole articles. At the same time, they cause more problems and difficulties in learning other grammatical items for Chinese Korean-learners. Based on that, the dissertation is helpful for Chinese learners who are studying Korean.

Starting from the most basic concepts, the second chapter focuses on analyz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adjectives.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adjective is the basis of accurate learning of it.

With the comparison of concepts and primary comprehension of adjective, the third chapter analyzes in detail about the features of Korean and Chinese adjective from grammar and meaning. Based on those features, we analyze the detailed usages of Korean and Chinese adjective in articles; especially we provide the detailed explanations of adjective changes in different tense and 语尾 changes in using with noun and verb.

The fourth chapter emphasiz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adjective meanings in Korean and Chinese. We have provided the comparative analyses from six different views, which could be helpful for Chinese Korean-learners.

Until now, there are few comparative studies of Korean and Chinese adjectives. About this dissertation, some limitations also exist in such an area. However, we hope it could provide some help for Chinese Korean-learners, and more profound research will be developed in the future.

Key Words

형용사, 통사적 특징, 기능, 심리 동사, 제약
adjectives, syntactic features, usages, psychological verb, limitation

논문접수일: 2011. 10. 21.

심사완료일: 2011. 12. 02.

게재확정일: 2011. 12. 09.